

ひな祭りのゆらい 히나마츠리의 유래

어느새 2020 년도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리빙 인 미야자키에서는 3월3일의 ‘히나 마츠리’(이 시기에는 복숭아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모모노 세쿠’라고도 불립니다.)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현재는 ‘히나 마츠리’는 여자아이의 축제로서 축하합니다. 또, 오곡의 풍년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 등을 기원하며 신에게 공물을 바치거나, 액운을 물리치는 ‘상사(上巳)의 절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상사(上巳)의 절구와 히나(인형) 놀이’

고대 중국에서는 음력 3 월 3 일에 강변에서 액막이와 미소기(넋물이나 강물에서 몸을 깨끗이 씻는 것)를 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풍습이 7~9 세기때부터 일본에 전해져 헤이안 시대에는 ‘상사(上巳)의 세치에’라고 불리는 연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상사(上巳)의 세치에’에서는 인형(종이, 나무, 흙 등으로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본인 대신에 액운을 강과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그 후, 귀족 계급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히나놀이’가 유행했습니다. 현재로는 소꿉놀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히나놀이’의 히나 인형이 긴 시간에 걸쳐 히나 마츠리로 되었습니다. 에도시대 중기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풍습으로서 히나 마츠리가 성황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남녀노소를 불문하지 않고 무병장수와 평온을 기원하던 풍습이 세월이 지나 국가를 넘어 오늘날에는 여자아이의 탄생과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축제로 변천된 것입니다.

【인형 축제 · 모모노 세쿠】

현재는 2 월이 되면 각 가정에서 히나 인형과 복숭아꽃을 장식하며, 3 월 3 일에는 치라시즈시와 하마구리(대합)이 들어간 스이모노(술 안주로 제공하는 국 요리)를 먹으며 축하하는 곳도 많습니다. 히나 인형에는 호화로운 계단형 장식부터 토기와 흙구슬의 소박한 히나 인형까지 종류와 재료도 다양합니다. 미야자키현 내에서도 다양한 히나 인형 전시회를 개최하므로 여러분들께 몇 군데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 「히나 인형전시회」

2020 년 2 월 15 일 (土) ~ 3 월 8 일 (일)

미야코노조시 미야코노조 시마츠 저택 [TEL:0986-23-2116](tel:0986-23-2116)

